

 국토교통부		보도해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 2. 25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거복지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조은혜, 김선영 • ☎ (044) 201-4504, 4506, 3360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현 정부에서 공급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85%가 가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.

< 관련 보도 주요내용 (동아일보 등, '21.2.25) >

- ◆ “문정부 공공주택 85% ‘가짜·짜퉁’... 증가 32.8만호 중 장기 4.8만호” 등
- 문재인 정부 3년간 공공주택 재고는 32.8만호 늘었으나 늘어난 물량의 85%는 가짜(10년임대와 전세임대), 짜퉁(매입임대, 행복주택) 주택
 - 문재인 정부는 장기공공임대를 OECD 수준인 8%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지만, 실제 재고율은 4.2%에 불과

- 공공주택특별법상(제2조) ‘공공임대주택’은 영구임대, 국민임대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, 분양전환 공공임대, 매입임대, 전세임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,
- 현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(‘19년 기준 총 158.4만호)은 100% 모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.
- 행복주택은 30년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청년·신혼부부, 취약계층 등에게 시세 60~80%로 공급중이며 계층에 따라 최장 20년간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장기간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.
- 전세임대, 매입임대 주택은 도심내 기존 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가 시세의 30~40%의 임대료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.

- 특히,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선호하는 주택을 선택 후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 재임대하는 구조로, 주택관리 등에 대한 책임도 LH가 담당하여 단순한 보증금지원 상품과는 다릅니다.

○ 10년 분양전환 임대인 경우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하며 분양 전환시 공공임대주택 재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.

□ 현 정부는 '주거복지로드맵('17.11월)'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으며, '20년에도 목표(14.1만호)대비 9천호 많은 15만호를 공급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약 8%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.

○ 향후에도 정부는 '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240만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김선영 사무관(☎ 044-201-33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